

“감 깨워라”... 잠들지 않는 방망이



KIA 중심타선 부진에 5할승률 넘을 듯 말듯 이범호·나지완·김다원 등 연일 야간 특타

마른 타격에 불을 붙여라. ‘호랑이 군단’의 발등에 떨어진 불 ‘타격’이다. 타격 페이스라는 것이 원래 들쭉날쭉하다지만 KIA는 매일 타격과의 전쟁이다. 모처럼 타격쇼를 펼치면서 감을 잡은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침묵하는 타자들 덕에 마운드의 예상외 선전에도 5할 고지 넘기가 쉽지 않다.

지난 10일 경기가 끝난 뒤에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의 조명탑은 한동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날 주장 이범호와 김다원이 방망이를 들고 나오면서 야간 특타가 진행된 것이다. 실내 연습장에서 야간 특타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야간 특타는 올 시즌 처음이었다.

실전감각을 잡기 위해 실내가 아닌 그라운드 나온 두 선수. 조계현 수석코치를 비롯한 코치진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전원 그라운드로 나와 자리를 지켰다. 40여분 간의 특타에 함께 한 코치들은 공을 정리한 뒤에야 길었던 하루를 끝낼 수 있었다.

앞선 9일에도 불 꺼진 경기장에서 야간 특타가 진행됐다. 이범호와 나지완이 방망이를 들고 나와 스윙 연습을 했다. 흠을 시작으로 내야를 지나 외야를 거쳐 홈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들의 어둠 속 스윙은 계속됐다.

이범호와 나지완은 KIA의 공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범호는 노련미와 수비, 나지완은 4번 타자로 가장 꾸준한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며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을 해왔다. 그러나 올 시즌 이들은 기대와 다른 걸음을 하면서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KIA의 제자리

걸음도 계속되고 있다. 마음 답답해진 선수들이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를 연속 야간 특타를 진행한 이범호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다. 많이 치니까 페이스도 올라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다원과 나지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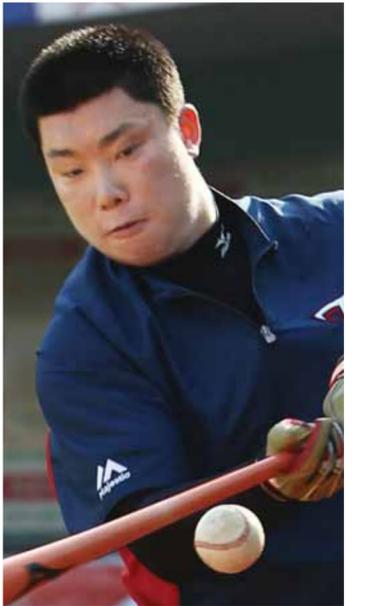


이범호

연습타격 때 잇달아 담장을 넘기면서 한층 매서워진 스윙을 보여줬다.

김기태 감독은 10일 야간 특타가 끝날 때쯤 슬쩍 덕아웃에 나와 “특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애들 왜 집에 안 가고 있느냐?”면서 웃었다. 이날 특타는 선수들이 자발해서 이뤄진 것이다.

김 감독은 “특타는 자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뭘가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다”면서 특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타격에 배고픈 선수들의 자발적인 특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야구 사제지간’ 필父子 그라운드 함께 서다

넥센전 시구

KIA의 ‘모범생’ 브렛 필이 야구 선배이자 스승인 아버지와 한 그라운드에 섰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앞서 외국인 타자 브렛 필(Brett Pill·31)의 아버지, 마이클 필(Michael Pill·56)씨를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열었다.

필에게 아버지는 야구 스승이다. 필의 아버지 마이클씨는 1977년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

러츠 2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야구 선수 출신으로, 마이너리그에서 3시즌을 뛰고 은퇴했다. 마이클씨는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필의 ‘야구 교사’ 역할을 맡고 있다. 필의 동생 타이러 필도 마이너리그에서 투수로 뛰고 있다.

아버지가 처음 경기장을 찾았던 지난 9일 역전 만루포를 쏘아올렸던 필은 “부모님께서 경기장 응원하는 것과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하신다. 아버지와 함께 하게 돼서 좋다”고 웃었다.

이날 시구 연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

지는 않았다. 비시즌에도 함께 공을 던지고 받는 부자지간이자 투수출신의 아버지다.

이번 이벤트는 KIA 구단이 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국에 맞춰 초청, 부모님이 흔쾌히 받아들여주시면서 성사됐다. 필의 딸인 켈리도 경기장을 찾으면서 3대가 함께 그라운드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한편 지난 시즌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필은 광주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필 부부는 지난해에 광주에서 딸을 출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톡·톡

▲“곧 끝나요.” = 막내 투수들에게는 하루 일과 중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선배들을 위해 훈련시간에 물을 챙기는 것이다. 현재 KIA의 투수진 막내는 한승혁, 홍건희, 유창식 등 92동기들. 얼마 전 96년생 고졸 루키 박정수가 1군을 다녀가면서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내 92가 다시 막내가 됐다. 물을 챙겨 나가던 홍건희는 “동기들끼리 한 달씩 돌아가면서 물당반을 하기로 했다. 17일까지가 내 기간이다. 이제 곧 끝난다”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팀 야수들에게는 안돼요.” = 11일 훈련 시간에 투수들이 외야를 바쁘게 뛰어다녔다. 배팅 훈련을 하는 타자들이 외야로 날린 공을 쫓

김기태 “매 경기가 기도하는 심정”

김병현 “기도가 부족하셨나 봅니다”

으며 운동을 하던 투수들. 나중에는 홍우태 투수 코치가 직접 핑코 배트를 들고 나가 외야로 공을 보냈다. 수준급 핑코 실력을 보인 홍 코치와 제법 익숙하게 공을 처리하던 김진우. 포구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에 김진우는 “뛰면서 운동도 하고 손발력도 키우는 것인데 생각보다 힘들다. 이 정도면 잘 하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 팀 외야수들에게는 안 된다. 수비들을 잘한다”고 언급했다.

▲“기도가 부족하셨나 봅니다.” = 톡톡 튀는

입담으로 유명한 김병현. 감독 앞에서든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일 김병현이 야간 특타가 진행되는 그라운드로 나왔다. 끈이어 등장한 김기태 감독. “넥센 타자들이 정말 좋더라”는 김병현의 이야기에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김 감독. 김병현은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로 “오늘은 기도가 부족하셨나 봅니다”라고 답을 했다. 이날 경기는 KIA의 3-4 역전패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

역시, 체조요정

손연재, 亞선수권 예선 1위로 결승 진출... 팀경기 ‘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개인종합 1위로 예선을 통과해 아시아선수권 2연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손연재는 11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 개인종합 이틀째 예선에서 리본 18.150점, 곤봉 18.200점을 획득했다. 전날 후프에서 18.100점, 볼에서

17.600점을 받은 손연재는 가장 점수가 낮은 볼을 제외한 세 종목 합계 54.450점으로 예선 1위로 개인종합 결승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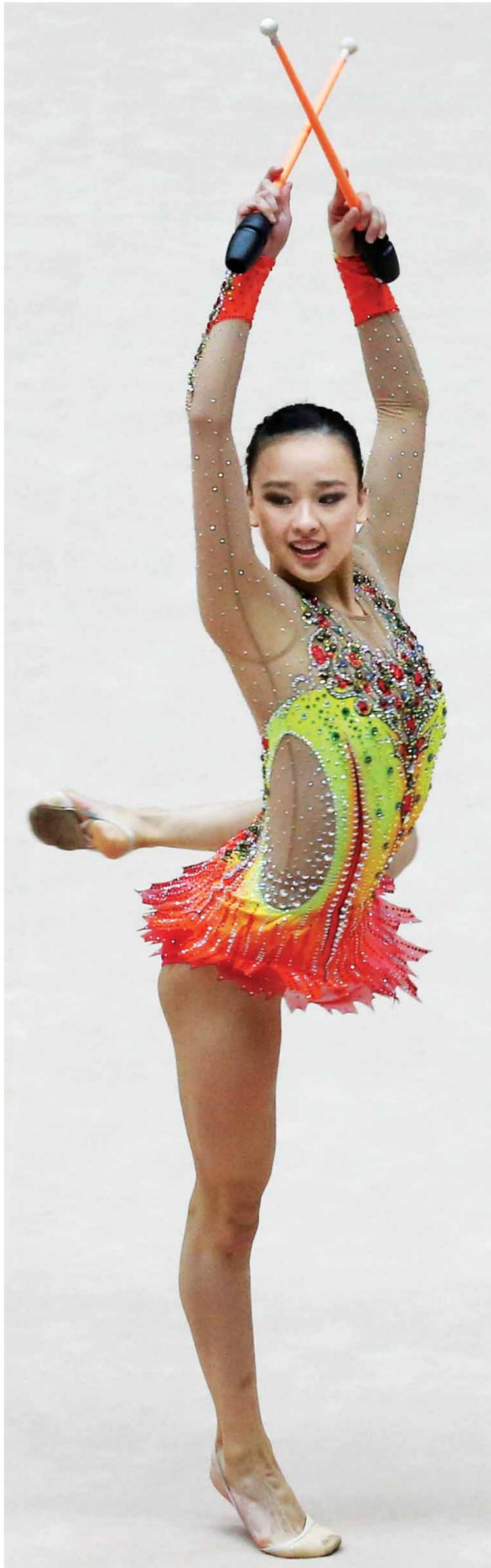
2위인 우즈베키스탄의 엘리자베타 나자렌코바(53.200점)와는 1.250점 차이다.

또 손연재는 전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8명이 겨루는 종목별 결선에 모두 진출해 다관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먼저 후프 종목에서 이스라엘 피아니스트 다니엘 아드니의 클래식 연주곡 ‘코니시 랩소디’(Cornish Rhapsody)에 맞춰 섬세하고 완성된 연기를 펼치고 후프에 이어 또 한 번 18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델라랩의 신나는 재즈-포크곡 ‘치가니’(Cigani)에 맞춰 곤봉 연기를 시작한 손연재는 흔들림 없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18.200점의 고득점을 받았다.

손연재는 12일 오후 2시부터 개인 종목별 결선. 13일 오후 1시부터 개인종합 결승 경기를 치른다. 손연재는 천송이, 이다애, 이나경 등과 함께 치러진 경기에서는 은메달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손연재가 11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대회에서 아름다운 곤봉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